

[경제]

3분기 국민 실제소득 증가율 마이너스 환란때 보다 더 어렵다

韓銀 발표…투자·소비 사실상 '제로 성장'

금융위기 실물로 이어져 재정지출 늘려야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잠정)'은 생산·투자·소비 등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환란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투자와 소비는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와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총소득 증가율 환란후 최악= 이날 발표된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 GNI는 전기대비 3.7% 감소해 1998년 1분기(-9.6%)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로도 3.5% 감소해 1998년 4분기(-6.1%) 이후 가장 나빴다.

실질 GNI는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제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다.

실질 GNI 감소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

◇ 생산·투자·소비 지표도 추락= 국내총생산의 전분기 대비 성장을 0.5%는 2004년 3분기(0.5%) 이후 가장 낮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0.8%로 내려온데 이어 3분기에는 더욱 떨어졌다.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늘어나는데 머물러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쳤다.

투자도 거의 동결됐다. 설비·건설·부동산 투자로 이뤄진 총고정자본 형성은 전분기보다 0.7%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2.1% 늘어나는데 그쳤고 건설투자는 0%, 무형고정자산투자는 -1.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기전망이 불확실해지자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는데 따른 현상이다.

◇ 연간 성장을 4% 초반 가능성 = 4분기에는 경기하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3% 줄어들어 2001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전월대비 0.5%포인트 내려와 11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하반기 성장률은 3% 초반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은 4% 초반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실물침체와 금융불안 악순환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기로 이미 전이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경기가 동반 하락하면서 3분기 수출이 전분기보다 감소했고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하는 등 수출과 내수, 투자 등 모든 부문에 충격이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감세, 재정지출, 금리 인하 등 전방위적으로 경기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은 4% 초반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실물침체와 금융불안 악순환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기로 이미 전이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경기가 동반 하락하면서 3분기 수출이 전분기보다 감소했고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하는 등 수출과 내수, 투자 등 모든 부문에 충격이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감세, 재정지출, 금리 인하 등 전방위적으로 경기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송년 회식자리 민물고기 드세요 2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민물고기 송년 회식상 이벤트'에서 삼인들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된 민물고기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시식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산 민물고기가 안전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불경기 뒷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인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내년 수출 5천억弗 꼭 달성하자”

정부, 무역금융 선제적 대응… 수출 활성화 총력전

세계 경기침체로 11월 수출 감소율이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45회 무역의 날 행사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수출 1억 달러 돌파 44년 만에 올해 4천억달러를 달성했지만 우울한 내년 수출 전망 때문에 빛이 바랬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을 늘리기 위해 무역금융을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공급하는 등 수출 활성화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무역투자진흥회의 제시한 내년 수출 목표치 5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적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축

사에서 수출 활성화 대책과 관련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선제적이고 충분하게 확실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세계 각국으로 안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산업생산에서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원되도록 일선 현장을 꼼꼼히 청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전체 수출의 26%를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수출보험공사는 현재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는 130조원이지만 내년에 17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보

험기금에 예산 3천100억을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거래 위험을 감소시키는 단기수출보험 지원을 올해 86조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99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플랜트와 선박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수출보험도 올해 12조 6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9조5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중동과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등을 잠재시장으로 구분해 아프리카는 남아공 월드컵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와 알제리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 참여 등을 추진하고 중남미는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며 1,000선을 위협받았다. 국내증시는 단기 유동성 증가로 형성된 에코버블(Echo Bubble)이 한꺼번에 꺼지며 최근 1주일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4.5원 대비 1,464.5원으로, 역세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밤사이 다우존스가 7.7% 급락했고, 나스닥종합지수가 8.95% 폭락하는 등 블랙 먼데이 현상을 보인 미국 증시가 국내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ju.co.kr

美 증시 급락… 금융시장 요동

코스피 1000선 위협… 환율은 1460원대 급등

전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

2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1,000선을 위협받았으며 코스닥지수는 3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역세 만에 오름세

로 돌아서 1,460원대로 치솟았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5.42포인트(3.35%) 떨어진 1,023.20, 코스닥지수는 8.62포인트(2.80%) 내린 299.58에 마감됐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1,007선까지 떨어

졌다. 미국 증시가 7.7% 급락했고, 나스닥종합지수가 8.95% 폭락하는 등 블랙 먼데이 현상을 보인 미국 증시가 국내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카리아서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교환실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04	062-515-0026
디자인코어	[주5일] 웹디자이너 및 프로그램개발자(PHP)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04	062-228-0888
(주)소림기계설비	건축설비공무, 플랜트기계공무, 소방공무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05	062-269-2900
포프리(주)	고객지원 CS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5	062-158-0029
더비디샵	데비디샵 매장관리/판매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6	062-366-8866
해성정보통신	일반사무 및 매장관리 직원(경력자 우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06	010-662-8285
(주)성광	회계 세무 분야 경력직 여사원	초대졸/경력3년	2400~2600	12/08	062-576-6201
동양병영보험(주)	2008년 하반기 자산관리사 공채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9	062-226-4904
프리미스에이치알(주)	SK텔레콤 114 상담원-주5일(연봉2400)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12/09	062-383-1756
지비씨(주)	매장 영업관리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62-360-6730
한국인포데이터(주) 전남본부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인바운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62-360-0503
삼성판사판서광주교육본부	유치원 영어교사	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10	062-373-5346
롯데우유(주)	롯데우유(주) 광주지점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2-2639-302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쉬워진다

‘출국 뒤 재입국’ 규정 이르면 내년 초 폐지

국내 기업이 근무하는 외국인이 재고용 계약을 하기 위해 한차례 출국한 뒤 재입국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르면 내년 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슈퍼마켓 운영자가 관청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점포를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 제3차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은 최장 3년이며 재고용을 위해서는 일단 출국한 뒤 1개월 이후에 재입국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 번에 1년 단위로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 속

/연합뉴스

인터넷 ‘오픈마켓’ 징통 판매

법원 “배상 책임 없다” 판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 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 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케이티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96년 설립된 케이티는 ‘K2’나 ‘케이티’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디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 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멀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매하는 부정경쟁 행위자인 인터파크에는 이를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까지 대주단 가입 신청을 한 건설업체 24곳에 대해 주 채권 금융기관들이